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 / 살레시오회

청량감을 주는 탄산처럼

톡톡 쏘는 탄산의 도움으로 더위를 이겨낸 여름입니다. 더위에 가출한 영혼을 챙기라고 자극하는 탄산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올여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부를 물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했다고 전해주는 사건·사고는 꽤 충격적입니다. 이 소식들과 덧붙여 전해지는 목소리는 ‘요즘 청소년들은 반성할 줄 모른다.’, ‘영악해서 법을 이용한다.’, ‘강한 처벌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등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강한 처벌만이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논지의 소식들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강한 처벌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강한 처벌만이 답일까? 세상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청소년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 청소년들은 돌아갈 집은 있나? 등 처벌을 강하게 하기 전에 범죄의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곁에서 보고 함께하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처벌을 위한 큰 목소리는 위기 청소년들을 점점 세상 밖으로 내모는 듯 여겨집니다.

탄산의 자극으로 저는 더운 여름에 가출한 영혼을 붙잡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탄산의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자극이 긍정적 측면인지 부정적 측면의 자극인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극받은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벌이라는 측면보다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탄산이 주는 청량함과 시원함 같이 위기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붙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선선한 가을을 느끼는 한 달이 되기를 희망하며, 청소년들 안에서 빛을 바라보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님께 올립니다

교도 사목과 도시빈민이라는 두 개의 큰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신부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글은 저희가 보아온 이곳 교도소의 실상이므로 신부님께서 교도 사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지내는 이들을 크게 나눠 보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의 교만과 약한 자의 비굴함, 배운 자의 아집과 못 배운 자의 힘의 논리, 자신의 나약성 때문에 한 손에 십자가와 다른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명 ‘떡 신자’ 등 무수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명 ‘떡 신자’들과 나약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대개 이렇게 선택합니다.

첫째는 주위의 친구 혹은 부모님이나 아내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가 지니는 교리는 차후 문제이고 먼저 그 종교를 선택합니다.

둘째는 흥미 위주의 선택인데, 오락프로그램 혹은 떡이나 과자를 많이 가지고 오는 종교를 택합니다. 그래야만 고정적인 틀에 박힌 이곳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해방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위의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진실하게 그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전교의 대상인데, 사실 전교가 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지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재범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선 실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실천해 보기도 전에 쾌락적인 생활에 용해되고 마는 경우라고 합니다.

사랑의 보따리를 들고 와서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고 도로 가지고 가는 식의 봉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불만만 쌓이게 하며, 말만의 봉사로서는 확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기도회 등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실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서신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이상과 실천이라는 두 다리 위에 하느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라는 몸통이 생겨나고 사랑이라는 팔과 손이 만들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탄생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부님 두서없는 글로 심려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이 넘치는 삶이시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나시오 올림



성체의 고품

김영옥 마리아_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대표봉사자

가끔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잘살고 있는 걸까?’

해가 거듭될수록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 짙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박해 시대에 살았었다라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켜 낼 수 있었을까? 그분들처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수시로 듭니다.

또 코로나로 성당 문이 수시로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성체의 고품을 경험한 열심히 한 신자들은 경쟁적으로 미사 시간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열 명을 들여보낼 때나 스무 명을 들여보낼 때나 마흔 명을 들여보낼 때나 여든 명을 들여보낼 때나 경쟁적으로 일찍 와서 대기 줄을 서시는 분들, 그저 한 번이라도 더 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 뿐 인가 봅니다. 그에 반해 저는 어떠한가 하고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여러 겹으로 줄을 치고 또 치며,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이일 저일 봉사를 해가며 성당에서 살다시피 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볼 여력 없이 주님을 보파리에 싸서 가방에 넣어 두고 봉사 중독이 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던져진 질문, ‘전례가 무엇일까?’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제사’ 이렇게 글로 된 의미 말고 ‘전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상처받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타인 안에 상처받은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뵈 수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교정시설에서 활동의 제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제·자매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전례에 목말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열기에 더욱 힘겹게 생활하고 있을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어 교정시설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도 접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중에서-



아론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론은 히브리어로 ‘고상함’, ‘선생님’,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최초의 대사제로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사제가 된 이래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는 모두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계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론을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구절이 이상합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저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라”(탈출 4,27)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모세의 입이 되어 도와주어라’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아론에게는 그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따름입니다. ‘너 아니면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이라도 했으면, 아론이 으쓱이나 했을 법한데, 너무나 짧고도 간단한 소명사화입니다. 후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의 극적인 부르심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느껴집니다.

아론이 사제이지만, 아론과 하느님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말씀을 내릴 때는 여지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사제로 성별 되는 의식(레위 8,1-36)도, 또한 하느님께 첫 제사를 지내는 모습(9,1-24)도 철저히 모세가 주도하며,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레위 9,21) 따를 뿐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도 아론이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슴씨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거의 모세가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은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찾아갔고 (탈출 18,16),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18,13)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철저히 모세 중심인 이 사회에서 2인자 아론은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를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민수 12,1-2)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사실만을 두고 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론이 얼마나 모세에 대한 시기심이 강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물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탈출 32,1-4)

(...)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탈출 32,22-24)

아론의 질투와 욕망은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드러납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꼈던 열등감을 상쇄하며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 물욕을 채워줄 금붙이를 모으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하느님 대신에 내 욕심을 이뤄줄 듯한 수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금송아지에 대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모세에게 아론은 백성 탓을 합니다(탈출 32,22-24). 그의 변명을 보면,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듯하지만, 자신이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를’ 만든 내용은 교묘히 빼고 말합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모세는 거듭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탈출 32,11-14; 32,32).

아론은 자신의 부르심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는 막중한 소명을 모세는 여러 이유를 대며 피하지만, 아론을 협조자로 얻은 뒤에는 더 이상 거절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아론이 모세에게 든든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론을 언급한 것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이를 보내십시오”(탈출 4,14) 이라고 거부할 때,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라며 하느님께서 모세의 파트너로 직접 뽑아주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도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해방에 있어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했습니다. 파라오에게 갈 때도 함께 가서 담판을 지었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소명과 위치와 역할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면에 있는 그 욕망을 살펴봅시다. 더 높은 곳을 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는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느님을 원망하고, 남들의 처지와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이 처지 역시, 자기 잘못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에 대해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충실하고도 책임감 있게 걷고 있는지 반성해봅시다.

'천천히 성장하자' (I)

주00 / 2021년 창업 대출자

▶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도소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 원하는 직장엔 취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삶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의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를 떠나서 저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창업 어렵죠. 창업만큼 어려운 게 직장생활입니다. 직장이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했을 당시 통장에 돈 한 톨 없고, 빚만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해나갔고 조금씩 자금을 모았습니다. 빚 상환을 빨리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빚을 해결 하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빚이 반 정도 남았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대출금 언제 갚고, 언제 창업하나?' 극소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보던 중 현재 업종(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되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직장에서 퇴사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 창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창업에 관한 책도 보고, 강연 들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 금방 2~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을 공부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변호사들, 연예인들을 잘 보십시오. 연습 및 실전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실전이 아닌 이론에 집중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한번 실전에 돌입을 해봐야 합니다. 공부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면 포기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실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단, 실전에 앞서 반드시 생각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 자금 마련에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정말 어려웠죠.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오프라

인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소자본으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죠. 채무 상환 시기 한 달 후쯤부터 정부 기관과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결과는 바로 거절. 과거의 연체 기록이 있어 최소 2년간은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성장하자' 천천히 하다 보니 현금이 조금씩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재투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감사하게도 승인을 받아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운영하는 비법이 있나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닌 관계로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문 확인하면 감사하다고, 출고하면 안전하게 배송하겠다 감사하다, 상품을 받으면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 밀착 마킹을 하니 쇼핑몰에 단골손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는 상관없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거죠. 현재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세스를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장하면 성장했지 절대 뒤로 후진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사람은 성장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멈추고자 한다면 멈추는 게 아닌 뒤로 계속 후진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상황 또한 제 사업의 일부입니다. 헤쳐 나가야죠. 사업을 중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앞으로 나아가 몇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기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다음에 계속>

+사랑하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연일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4차 확산으로 4단계 격상되어 이곳에서는 한 달 가까이 모든 게 중지되었습니다.

불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ㅎㅎ

예전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삶을 만들고 생활했는데, 갈수록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나 매끼니를 챙겨 먹을 때, 편안히 잠자리에 들 때, 책을 읽고 있을 때, TV 시청을 할 때 등등, 그냥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아버지와 헤어짐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8월 1일이 벌써 49재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저 또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버틸 수 있게끔 신부님의 사랑과 기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족들도 신부님 덕분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제가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신부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저 또한 희생하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늘 기도 중에 함께 할게요.

여름 더위와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신부님.

식사도 꼭 잘 챙겨 드시고요.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부님~

2021. 08. 02.

토마스 올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안내

- ▶ 1주 월요일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2주 월요일 / 중서울 길음동 성당
- ▶ 3주 월요일 / 동서울 광장동 성당
- ▶ 4주 월요일 / 서서울 양천동 성당

오전 10시 30분

* 2022년 1월부터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가 매주 지역별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 수용자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6~8/12)

2021년 7월~8월에는 김태순 율리어나눔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준호 알풍소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정사목 행사 알림

• 9월 25일(토)~26(일) 종암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종암동 성당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